

전남 섬 노인 1만 6000명 백신 맞으러 '1박2일 고행길'

75세 이상 내달, 65~74세 5~6월 시작...육지 접종센터 등서만 접종
체재비 자부담에 1박 불가피...도서 특수성 반영한 접종 지침 필요

흑산도 주민 A(75)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4월 중 쾌속선으로 2시간이 걸리는 목포를 가야 한다. 1박2일 일정이다. 독감 백신 접종은 졸곶 섬 내 보건지소에서 이뤄졌지만,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은 보관·운반 등이 까다로워 모두 육지에 설치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흑시 모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살펴야 하는 탓에 고령의 A씨는 목포에서 홀로 하룻밤을 자고 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섬에선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

워서다. 이같은 불편은 5월부터 시작되는 65~74세 고령자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때도 마찬가지다. 보건지소 접종이 불가능해 보건소가 설치된 육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흑산도 주민 A씨 사례처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육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로 '1박2일 집중' 여정을 떠나야 하는 도서지역 고령자가 전남에 909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목포시 140명, 여수시 1094명, 고흥

군 190명, 보성군 76명, 해남군 40명, 영광군 72명, 완도군 3772명, 진도군 737명, 신안군 3020명 등 9개 시군 9091명이다. 이들 도서주민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적지않은 '1박2일 체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해 접종동의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보관·운반이 까다로운 화이자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등으로 백신을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요구지만, 정부가 받아들여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AZ백신으로 변경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기관에 섬 지역에 주로 설치된 '보건지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접종을 위해

선 육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병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방안 등이 포함된 2분기 코로나 19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섬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지침에 변화가 없다면 5~6월 접종 대상인 65~74세(AZ백신) 전남도서지역 고령자들 역시 1박2일 집중 여정이 불가피하다. 전남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65~74세 전남도서지역 주민이 9개 시군에 걸쳐 7797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지역 고령자 접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보건지소를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포함해달라고 정부

에 건의하고 있다.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 한정된 접종 실시기관에 보건지소를 포함함으로써 도서지역 고령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섬 주민이 많고 고령자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지침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도 백신 수급과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계획대로 접종이 시행될 경우 전남 도서지역 주민 불편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말 기준, 전남에는 2165개의 섬(전국 대비 65%)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서는 272곳이다. 섬 거주민은 17만3794명으로 전체 도민의 20% 해당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개통 이틀 앞둔 신안 임자대교 신안군 지도 점암에서 임자 진리 간을 잇는 임자대교가 오늘 19일 개통된다. 임자대교 개통으로 지도읍에서 임자도를 차로 건널 수 있게 돼 통행시간이 6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신안군 제공>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 드려 송구” 문 대통령, LH직원 투기 의혹 사과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겠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척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직무윤리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면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첫 사과메시지를 낸 데 대해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합의...25일 본회의 상정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의 원활한 개교에 필수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3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자인 부영의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 3월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

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찬반 토론 끝에 한전공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가 특혜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여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였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한전공대 측은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에 나서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근로감독관 1명이 3100개 사업장 관리	▶6면
KIA 연습경기 - 맷 감독 사비로 상금	▶18면
신 전남인 - 함평 석두마을 김진숙씨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U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도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